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
아름다운 사람

주공충현

나의 힘이 되신 아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18:1)

이는 내가 감사드리나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현교회 사회복음식당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조진근

2000년도 청지기 훈련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자!

충현의 모든 성도가 참여하는 영적 부흥집회로, 1월26일-27일 본당에서

교회는 오는 26일(수)과 27일(목) 양일에 걸쳐 2000 청지기 훈련을 실시한다. 그동안 청지기 훈련은 제직들과 교구 및 찬양대, 교회학교, 각 위원회 및 기관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나, 급변하는 일꾼들 뿐 아니라 온 성도가 동참하는 말씀집회, 진정된 부흥을 경험하는 영성훈련으로 실시될 계획이다. 사실, 교회에서 일정한 직책을 맡아서 봉사하는 자 뿐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청지기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전 성도들은 이번 청지기 훈련이 자신과 전교회를 위한 영적 부흥의 기회임을 알아 준비하고 동참하여 복음에 합당한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다시금 시작해야 하겠다. 그리고 이를 위해 모든 준

비과정과 특별히 말씀을 맡은 김성관 위임목사를 위해 서 기도도 중보해야 하겠다.훈련은 본당에서 거행되며 일정은 아래와 같다.

	26일(수)	27일(목)
19:00-20:00	수요예배 (담임목사장의I)	담임목사장의III
20:00-20:20	휴식	휴식
20:20-21:10	담임목사장의II	담임목사장의IV

2000년도 겨울수련회 성공학교

새천년에도 복음 안에서 천국일꾼 키우기 1월 24일부터 3월 1일까지 실시

금년 겨울에는 제1,2,3 교육위원회에 속한 23개 부서 중 17개 부서에서 아래와 같이 겨울수련회 및 성공학교를 실시한다.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과 교사들의 진정한 영적 변화와 말씀을 담은 강사들의 성령충만함, 그리고 모든 일정과 안전한 진행 등을 위한 성도들의 기도가 요청된다.

번호	부서명	기간	장소	주제	주제성구	주제찬송	강사
1	영아부	2.14(월)~2.15(화)	선103호	먹을것을 주신 예수님	막4:3	보리밭 다짐을 하고기 위하여	한영준 전도사, 장갑신 목사
2	유아부	2.14(월)~2.15(화)	교212호	예수님을 바라보다	마25:13	준비됐나요	김정자 전도사
3	유치부	2.14(월)~2.15(화)	교205호	하나님의 자녀	골1:12	하나님의 자녀	정원희 전도사
4	유년부	2.28(월)~2.29(화)	교304호	바른 예배를 드리자	요4:24	50장	김영기 전도사
5	초동부	2.28(월)~2.29(화)	교307호	예수님 새 생명을 주세요	시14:12	382장	송원식 전도사
6	소년부	2.28(월)~2.29(화)	교407호	"말씀, 믿음, 삶"	히13:7	377장	한승일 전도사
7	중동1부	1.24(월)~1.26(수)	충현기도원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	후5:17	493장	김필수 목사, 장갑신 목사
8	중동2부	1.26(수)~1.28(금)	충현기도원	교회와 우리의 생활	열5:27	245장	엄현일 목사
9	중동3부	2.24(수)~2.26(금)	충현기도원	내가 누려야 할 구원	고후6:2	210장	권상현 목사
10	고동부	2.21(월)~2.23(수)	충현기도원	교회에 주시는 말씀	계1:11	246장	조준환 목사, 이정철 전도사
11	대학부	2.08(화)~2.11(금)	충현기도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기뻐라	딤후3:14	235장	김동학 목사, 하규구 전도사 김일성 전도사 김윤식 전도사
12	청년1부	12.31(금)~1.1(토)	교507호	내가 자랑하는 복음	골1:16	397장	이승환 목사
13	청년2부	2.28(화)~3.1(수)	충현기도원	민족의 선한 씨앗을 뿌리는 청년	열5:11	390장	김인식 목사
14	장년1부	2.19(토)	갈릴릴, 만나 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기뻐라	딤후3:15	234장	박병용 목사
15	사학부	3.01(수)	교107호	주 예수님을 믿으라	행16:31	205장	김동학 목사, 이상일 전도사
16	예배다부	2.25(화)~2.26(수)	교109호	일어나서 말씀을 발라라	골1	259장	백인기 목사, 유성철 전도사
17	영어교육	3.01(수)	복지관B1	추후 통보			

오늘, 장학생 선발 설명회

2000년도 전반기장학생 신청
1월 30일까지

오후 3시30분, 교육관 407호

도서장학회는 2000년도 전반기 장학생 신청기간을 오늘부터 1월 30일(주일)까지로 정하고서 접수를 시작하였다. 신청자격은 장학생 청원서(사건부착), 입학서, 자기소개서(중고생 제외), 서약서, 추천서, 입학허가서 및 유학시험합격증 사본(해당자), 전 학기 성적증명서, 부모 또는 보호자 명의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본 등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교육국으로 하면 된다.

한편 장학회는 오늘 오후 3시 30분에 교육관 407호에서 장학생 선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인데, 설명회 참가대상자는 중·동1, 2, 3부, 고동부, 대학부, 청년1부의 부장 및 교무처장 등이다.

전도위원회 영성훈련

1월 18일 오후7시, 베다니홀

전도위원회는 2000년도를 시작하면서 18일(화) 오후 7시부터 영성훈련을 갖게 된다. 참석대상자는 전도위원, 실행위원, 각부 부장 및 차장, 직능전도회 회장과 부회장, 담니전도회 회장과 부회장, 그리고 루디아 중창단 등이다.

일반 찬양대원과 독창자를 위한

제4회 전국 찬양 대원 성악강습회 19일부터 22일까지 거행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성도라면 누구든지 영적인 찬양, 배위 익숙한 찬양, 사의 영혼을 울릴 뿐 아니라 듣는 이들의 마음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부르는 찬양을 부르고 싶어한다. 이를 돕기 위해 전국교회의 찬양대원들을 대상으로 성악강습회가 열린다.
이 주간 19일(수)부터 22일(토)까지다. 우리교회 성도들도 신청하여 참가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찬양위원회(교관 259, 260)로 문의하면 된다.

시간	1월 19일(수)	1월 20일(목)	1월 21일(금)	1월 22일(토)
08:00	세례예배	세례예배	세례예배	
08:30	아침찬양 및 서면	아침찬양 및 서면	아침찬양 및 서면	
09:30	이강식사	이강식사	이강식사	
10:30	제헌연습	제헌연습	제헌연습	
10:50	영광의 찬양대원	영광찬	영광찬	
11:00	실기개강연습	실기개강연습	실기개강연습	
12:00	점심식사	점심식사	점심식사	점심식사
13:00	실기개강연습	실기개강연습	실기개강연습	제4회 전국 찬양대원
14:00	개강예배(사제사목)	개강예배(사제사목)	개강예배(사제사목)	
15:00	사제사목 및 3교목회	사제사목 및 3교목회	사제사목 및 3교목회	
16:00	호흡 및 발성법	한승기 연수회	수강생 연수회	
17:00	발성법 기법습	김요한연습	김요한연습	
18:00	자녀사서	자녀사서	자녀사서	
19:00	수요(1)예배	1월 부흥회	김요한연습	
20:00	발성연습	성가독습합창	(본인)	
21:00	조별모임	조별모임	조별	
22:00				

계속되는 단기선교단 파송 추진회 평신도단기선교사 스리랑카로 1월 20일에는 인도팀 12명 파송

지난 주간에 단기선교단 세 팀이 출발했다. 몽골팀(11일)과 스리랑카팀(14일), 그리고 수리남팀(15일)이 각각 의료선교 및 귀국근로자 양육심방사역, 현지정소년 사역정발, 그리고 인디언 원주민 전도사역 등을 위해서 출발한 것이다. 이들 중에는 1년간 스리랑카에 머물면서 현지인 양육사역을 담당할 추진회 평신도단기선교사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금주에는 인도팀(20일)이 출발한다. 이들은 캄페스전도와 귀국근로자 심방 양육사역, 그리고 어린이 성경학교 사역 등을 감당할 예정이다.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뜨거운 기도의 후원이 계속되어야 하겠다.

담니전도회 하반기 회계감사

담니전도회 각 지회에서는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아래의 사항에 따라 감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2000년 1월 중(매주일)
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장소: 선교관 4층 전도위원회실
준비서류: 시산표 2부, 금전출납부, 원장, 예금통장, 영수증철



김창인 목사

헌금을 바로 바칩시다

(말 3:7-12)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그분이 천지만물을 “있을지어다” 하시는 절대자의 음성으로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땅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찌든 머무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여행을 온 나그네가 여비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보통인데 우리들은 아무것도

오신 예수님께서 형벌받은 우리의 죄책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형벌을 받겠사오나 내 대신 형벌받은 죄를 보시고 이 죄를 믿는 자마다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고, 오늘도 이 죄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이러한 주님

지 않는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십일조에 안 바치고 일주일에 7일을 내내 일을 해도 모르라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에는 교회 간다고 일도 안하고 수입의 십일조까지 바치게 되니 다 거지가 될 거다.” 그럴 듯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헌금을 바로 바치면 쓰지 않을 돈을 안 쓰게 됩니다. 필요 없는 돈을 안 쓰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바칠 줄 아는 자는 돈에 대신 가치를 바르게 알아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범죄하는 데 사용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러나 필요 없는 돈이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살면서 필요 없는 돈을 함부로 쓰기 때문에 나라도 개인도 고생을 하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헌금을 바로 바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니 심은 것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결정할 일하는 충성심을 주시고 부지런히 일할 수 있는 절성한 마음을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이 비를 내려 주십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이삭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다니 그 해의 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도들이 교회에서 드리는 헌금은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헌금을 사용하는 교회의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충헌교회는 헌금을 성도들이 바로 바치고 교회 종직자들이 헌금을 바로 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들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드러진 헌금들이 선교와 구제를 위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 결 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을 할 때에 무슨 대가를 바라면서 헌금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셨으니 십일조를 바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 생기니 감사헌금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박을 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사치품을 사는 등 필요없는 데 돈을 쓰는 일을 끊어 버려야 합니다. 이리하여 하나님 앞에 절제 있는 삶을 살 때에 평안이 옵니다.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마음에 평안이 오면 가정도 평안합니다. 마음에 평안이 오면 몸의 건강도 보존됩니다. 이 평안은 인간이 무슨 연구를

헌금을 바로 바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헌금을 바로 바치는 사람은 돈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헌신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십분의 일을 똑 끊어 바칩니다.
그리고 법사에 감사가 넘치니 감사헌금도 하게 되고
잘못한 일에 대하여 용서를 빌면서
회개하는 헌금을 바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
건축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 등을 하게 됩니다.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빈손으로 왔습니다. 여관집 주인이 고맙게도 부자인 고로 여행 물 사람을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시는 공기도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없으면 살 수 없는 물도 하나님이 준비해서서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십니다. 그 외에도 우리 쓰는 만물을 하나님이 미리 마련해 주셨습니다.

의 기도를 통하여 지난 죄를 용서받고, 의인으로 칭함을 받게 되었으며, 천국 시민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인인데 “네 죄를 용서하도라” 의인이 되었습니까. 죄인인데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하나님은 천국 시민권을 주십니다. 천국 시민권을 주신 하나님이 세상 바깥에 까지 성령님을 보내시어 보호하여 주시면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자와 여러분들은 헌금을 바로 바치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감사함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십일조를 드릴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십일조 생활을 해야 합니다.

1. 헌금은 하나님의 명령

“우리 쓰는 만물 다 주님 선물일세”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먹고 마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헌금을 바로 바치면서 섬기라” 하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인간들이 땅 위에 나그네로 있는 동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어떤 하고 복종해야 되는데 고맙한 마음이 생겨 자기의 고집을 부립니다. 또 욕심이 생겨 딴 길로 갑니다. 제멋대로 죄를 범하고 제멋대로 살면서 반역까지 합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게 됩니다. 이 심판대에서 하나님께서 “너 세상에서 무엇 하다 왔느냐? 또 물으니 다면 죄악에 내놓을 것이 없습니까. 이런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금이냐 독재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에 이롭느냐.”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여 세상에

2. 헌금은 은혜의 통로

헌금을 바로 바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헌금을 바로 바치는 사람은 돈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헌신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십분의 일을 똑 끊어 바칩니다. 그리고 법사에 감사가 넘치니 감사헌금도 하게 되고 잘못한 일에 대하여 용서를 빌면서 회개하는 헌금을 바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 건축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 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헌금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칠 때에 첫째는 필요 없는 돈을 쓰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믿

이리하여 하나님 앞에 절제 있는 생활을 살 때에
평안이 옵니다.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마음에 평안이 오면
가정이 평안합니다. 마음에 평안이 오면 몸의 건강도
보존됩니다. 이 평안은 인간이 무슨 연구를 다해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중의 선물입니다.

일이 100배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 바로 믿고 십일조를 바로 바치고 죄를 범하지 않기로 애를 쓰고 죄를 이기고 이기고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육간에 은혜를 주시는데 물질도 때를 따라 주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하고 넘어갈 문제가 있습니다. 욕심과, 물질의 복만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헌금을 바로 바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은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다해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중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가진 사람은 담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항상 기억하고 십일조를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영육간에 평안의 복을 누리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영광스러운 그날 할렐루야 찬송 부르면서 예수님 바로 나가 면류관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김 성목 목사

미쁘다 이 말이여

(딤후 1:15-16)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부스니라”

가장 도덕적인 자의 고백

길리가야 지방의 주요 도시 다소에서 태어난 바울은 할례받은 유대인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고 헤브라이인이었으며 바리새인으로 훈련받았습니다. 그는 종교적으로 많이 공부하여 동류 중 누구보다 탁월한 학문적 소양을 갖추었고 율법에 충실했습니다. 더욱이 그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참으로 진지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가 당대의 누구보다 윤리적으로 경건한 자였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비할대없이 깨끗한 사람(super clean guy)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그의 입에서 오곤 객이 무엇입니까?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부스니라”(15절). 젊은 시절부터 바울의 모든 계명을 받아 실천한 그가 참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가 자신을 죄인들 중에 예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예외없는 죄인들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악한 말과 행동은 다 등장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저절로 나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인과 강간, 유괴와 강도, 적인 내용 등으로 절창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신문들 통해서 극악한 범죄소식들을 읽거나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나만큼은 그렇게 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나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믿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바울이 경험해서 “나는 죄인 중에 죄수”라고 고백할 수 있었는가를 목상하게 너무나 아름답다. 우리가 자신의 죄를 회개할 줄도 모르며 죄가 때문인지, 우리들은 그 같은 죄의 깊은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모른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요! 여러분은 자신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회개는 눈물이 있어야

저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전하는 회개의 눈물이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소

원합니다. 그는 모든 죄악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다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죄인 중의 죄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바로 이로 인해 그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부스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믿게 오려 함을 보시자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15-16절)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절대적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인 내가 바울을 그의 죄성으로부터 건지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전히 효력이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 이 바로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시라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기억하십시오. 그는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율법자요 핍박자요 포해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내가 죽었고 회개하였을 이라”(13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라면 그에게 긍휼을 베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소 출신의 그 경건한 유대인이 실은 그의 외모만큼이나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권리에 대하여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그는 불신자였습니다. 전혀 믿는 자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다소 출신 바울이 변화되었습니다. 아멘! 변화된 후, 그는 자신이 죄인 중의 죄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보고 받아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렇게 낮고 낮은 오물로 내려가셔야 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변화되었다는 소식이 유대에 있는 성도들의 귀에 들었습니다. “다만 우리들 핍박하던 자가 전과 관해하니 그 믿음은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갈1:23).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갈2:20). 놀랍지 않습니까? 율법을 쫓던 바울이 놀랍도록 변한 것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바울은 실로 자신의 믿음체계를 송두리째 변화시킨 극적인 체험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의 무

지는 구원의 길에 대한 지혜로 변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그에게 진리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가 복음에 대하여 결론짓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는 매우 단순히 이렇게 말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성경말씀이 바로 그러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그리고 이 단순한 진술 위에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덧붙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부스니라”. 그는 빛을 보았고 그 빛은 바울의 어두운 골 구원을 향한 그의 필사적인 갈망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진정한 복음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진정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누가 죄인입니까? 모두가 죄인입니다. 누스의 첫머리를 장식하는 죄인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살인에서 자살한 허울에 이르기까지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여러분이 “미쁘신 그 말씀”을 믿으신다면 그것으로 다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면 한 번 믿음직하고 영생을 얻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고난과 순종을 통하여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길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받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통이 아무리 커도 기쁨은 그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들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들은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미쁘신 말씀”입니다. 함으로 믿음만 한 죄인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 죄인의 죄수라고 했을 때, 그는 과거 율법 아래 있는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의 자신을 보면서 말합니다. “나는 내가 죄인의 죄수였다”가 아니라 “내가 죄인의 죄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죄는 구속 받은 성도들도 계속해서 붙잡고 싶어 합니다. 스데반을 죽인 바울은 자신을 용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의아해하면서 “내가 어떻게 그를 죽일 수 있었을까?” 하고 변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극악한 죄인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용서 하셨습니다. 이와같이, 비록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절이 나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이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일절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이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저처럼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는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엡3:8).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주심은 저처럼 작은 자에게까지 미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생명의 소망입니다.

가다리는 하나님

베드로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이기기를 원하시느니라”(벧후3:8).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림이 늦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이기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미쁘신 말씀”이 아닙니까? 바울은 육체의 연소보다 영적인 더욱 유익하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다시 한번 이것을 말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다”(딤후1:49). 그리고 다시한번 더 진술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며 또한 함께 살 것 이요”(딤후2:11). 바울과 관계된 것은 무엇이든 참으로 미쁘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은 잃어버린 자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도 저들과 똑같다.” 그러나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만일에 예수님과 그의 계각을 하시는 피가 거들면 여러분의 자리가 저 잃어버린 자들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무엇이든 주께로 두렵고 그 값은 사함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롬3:23). 예수님께서 죄인을 곧 여러분을 구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소식이야말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최고의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

선교사의 꿈

류 지 만 (중동부 3학년)



△중동부 그루터기 친구들과 함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중동부 연합 선교팀인 그루터기의 회장의 자리에서 봉사하고 있는 류지만입니다. 저는 중동 2부 때부터 그루터기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선교에 비전을 키우는 그루터기에 별생각없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제 생활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밥 먹기 전에는 하지 않던 기도도 조금씩 많이 하게 되었고, 아작은 부족하지만 성경도 읽고 Q.T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선교에 대한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루터기에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선교?

라고 따올리던 '외국에 나가서 전도하는 일',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러나 선교는 '외국에 나가서 전도하는 일' 외에도, 자신이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나타내면 선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선교를 하고 개신 선교사님들에게 격려 편지 한 통을 보내는 것도 선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 (여기서 '증인'은 '그리스도의 사역과 부활을 선포하는 자'를 뜻한다고 합니다.) 이 구절은 바울 짧은 한 문장이지만 성경 전체의 주제를 나타내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선교에 대한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 선교에 비전을 키워 나가며 열심인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배님들(물론 단기 선교이지만...)을 보면 저는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제가 이런 비전을 갖게 된 것만으로도 벌써 반을 나아왔으니 이제부터 계속 많이 준비하고 준비된 자로서 선교의 사역을 서명함을 가지고 행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미 선교에 대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저버리지 않아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께 "내 빛이 닿는 곳 작을찌라도"

박 소 혜 (고동부 1학년)

아빠, 저 소혜예요. 항상 지켜주시는 아빠, 갑갑은 절편에도 결국은 답을 주시는 아빠, 너무 감사해요. 파란만 하늘을 보며 하얀 구름 속에 가득한 꿈을 기뻐할 수 있게 해 주셔서, 내 삶을 당신의 것으로 삼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평생 아니 영원히 잊지 못할 아빠와의 첫 만남. 벌써 3년이 지나 되었지만 그 벅찬 사랑과 절 겹쳤던 약속만은 도저히 제 가슴속에 남아 있어요. 죄송해요, 아빠. 내 삶 전체를 드리기에는 커널, 아빠와의 교제까지도 때때로 소홀해져서요. 그렇지만 전 기뻐하고 있어요. 아빠, 끝까지 제 책임져 주실거죠? 결국은 아빠가 원하시는 소혜로 빛낼 것 같고 믿어요. 아빠를 잘 느끼지 못해, 힘들어 할 때도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아빠가 원하시는 소혜가 되겠고, 2년동안 힘들 때마다 생각나는 날 괴롭힌 '사람은 하나님의 강단감인가?'라는 질문 때문에 힘들어 했었는데, 얼마전에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당신은 날, 사람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 땅에 뛰어들어 하나님을 믿음을 아빠, 그동안 많이 속상하셨죠? 죄송해요. 전 선교사가 되고 싶었는데 나중 일이라고 미워할어요. 이제 내 빛이 닿는 곳이 작을찌라도 있는 그 자리에서 삶속에서 빛을 비출게요.

아빠, 사랑해요!

인사 - 김경철 원로장로



"은혜를 해도 침을 전도는 게속 할 겁니다." 침술이 넘으신 나이에도 한 달에 서너 번은 농어촌으로 전도를 나가신다는 김경철 장로님이

저녁이 지났는데 은혜를 앞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침 놓는 기술을 배워 전도하러 다니면 어떻게든 열심 사람의 말에 오심이 넘은 나이에 배운 배우자요. 그리고 그렇게 배운 침술은 전도에 유용하게 사용되어져 왔다고 한다. "그냥 교회에 나오라고 하면 안나오는데 침 맞고 오라고 하면 오거든. 꼭 기도하고 침을 놓으면 그중 서너 명은 예수님 영접하고 믿게 되는 역사가 이뤄져." 전도 사명을 갖게 된 동기에 대해 장

로님 고한일 평안남도 중화는 외국인 선교사가 들어와 복음을 전해 장로님 집안은 복음 1세대가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장로님은 평양 갈리 신학대에 입학해 목회자의 길을 향해 나아갔던 중 6·25 전쟁이 터졌다. '6·25 때 다리가 부상을 당해 기어서 강을 건너 스물 네시간만에 야근 기지에 도착한 후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지 내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어.' 하나님의 명령인 '나의 증인이 되라'라는 말씀에 따라 평생을 살아오신 장로님! 목회자의 길을 가지는 못했지만 20년 넘게 농어촌 전도를 하시면서 전구 방방곡곡에 복음의 씨를 뿌리셨고 증인의 삶을 사셨다. 지금껏 강원도 영월 어느 산골교회에서 손끝을 잡고 기도하시고 게실 모습이 주님을 평생 사모하러 산 믿음의 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다. (원정섭 기자)

인도 단기 선교팀

인도선교기도정보



인도 단기 선교팀이 오는 20일 12월 13일의 일정으로 인도로 출발합니다. 이면분들은 "그 짧은 기간동안 무얼 할 수 있어?"라고 반문하십니다. 그 질문에 나선 이들은 길게는 반년 혹은 몇달 동안 선교 훈련을 받았으며 또한 때론 그 시간이 힘들고 바쁘게 느껴질 때마다 스스로에게 반문하곤 했습니다. 왜, 내가 이 땅으로 가고자 하는가? 비록 사역기간은 짧지만 그 순간으로 한 평생을 선교에 헌신하는 게기가 되기도 하고 한 낮선 이방인의 입에서 던져진 한마디 때문에 주님에게로 인도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은 기다리면서 당장 보이지 않고 잡지 못하는 것을 믿음으로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도팀의 기도제목은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뤄지고 팀원들이 사역후 비전을 받고 인도 기도문을 결성하며 팀원들 가운데 온전한 인도에 헌신된 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원정섭 기자)

25개의 연합부와 7개의 연합 영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리적으로 인도는 남아시아의 인도양에 걸쳐있다.



시크교도, 힌두교, 힌두교의 호전성과 민족주의로 큰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다.



기독교인의 80%가 힌두 카스트에서 인종 차별 정책을 당하고 있다.



전세계 인구의 16%가 인도인이며 이들은 자국의 24%에 살고 있다.



힌두교들은 힌두 카스트에서 중기하고 있고 정부와 무장 충돌하고 있다.



그런데 인도에서 5,000명의 청년이 영적 지도자 훈련을 받았고 60%가 마을에 교회 세우기 직업을 착수했다.



근본적으로 힌두교에 기초를 두고 있는 카스트제도는 인도의 사회, 종교에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시크교도들은 편협성 때문에 사적인 자들의 독립을 위해 정부와 치열하게 싸움을 치르고 있다.



인도에는 17개에 달하는 400만 명의 대학생들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다.



9억 인구 중 6억이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며 2백만 배급을 받지 않은 실업자들이 있다.



월리암 캐리가 인도에 첫 발을 내디딘 이후 200년 간 늘어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중국의 나라 인도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와 아직도 도울을 필요로 하는 이 나라가 복음적인 목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



가장귀한 선물

초신자를 위한 신앙강좌

교회에 처음오신 초신자 여러분은 아마도 귀에 들리는 용어들에 다소 생소할 것입니다.
이에, 한달에 한번씩 여러분을 위해 신앙생활의 용어나 필요한 기본신앙지식들을 소개하고 설명에 드리려 합니다.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주강한 편지실
(선교관 303호, 구내전화 348, 349번)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믿는다' '믿음'이 있다' 혹은 '믿음이 없다' 하는 식으로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정작 믿음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림없이 떠돌는 생각은 있는데 막상 말로 표현하려고 하면 막막한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상 생활에서 믿음이라는 말은 '확실한 지식' 보다 한 단계 낮은 확신을 표현할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이 사람의 결속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내 말에 따라주다' 라는 말은 '이 사람은 결백합니다' '여말에 따릅니다' 라는 말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다. 일상 생활에서는 믿음이라는 말이 쓰인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할 때는 훨씬 중요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성구로 알려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의하면, 믿음은 멸망하지 않는다, 혹은 영생을 얻는다는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3:16). 성경에서 믿음은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는 뜻로입니다.

그런데 '믿으면 구워받는다'고 할 때 한 가지 유의해

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믿으면'이라는 말이 어떤 대가(代價)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것입니다. 쉽게 말해, 믿음이 내게 있는 것과 그것을 자본 삼아서 구원을 취득할 수 있다거나 그것을 가지고 구원을 내게 오게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내가 소유한 믿음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은 모든 하나님께서 태어난 사람에게 단번에 내려주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믿음은 있다 한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죄와 사탄의 의도 하에서 위전 우리 영혼의 눈을 새로운 기조들로 한바탕의 대우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성령님의 통혜 없이 주어진 때론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부활의 사심을 믿는 사람 속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시는데, 이 새로운 마음이 제질자신으로 가장 현저하고 명료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믿는 마음이고 또한 이 믿는 마음이 생가난 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그것을 성취해 나가는 순종이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
한다면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의 어두운 눈을 열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편지실)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이중환♥전금순' 부부를 소개합니다



아이들이 우리 교회
에 먼저 다녔고 전금순
성도는 10년. 봉사하시
던 교회에서 부군되시
는 이종환 성도를 교회
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웁기시게 되었습니다.
새가족부 집회 시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

는 초대 시간에 남편분이 큰 소리로 영접기도를 따라
하지 않았다고 면박을 주신 전금순 성도와 첫날이나
어리둥절하고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시니는 이
중환 성도의 아옹다옹하는 모습이 마냥 다정해 보이
셨습니다. 그의 가정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우
리 교회에서 잘 성장하여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김순화 자매를 소개합니다
대학 다닐 때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답니다. 결혼 후에 친구의 소개로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새가족부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메시지를 들을 때면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기도 하는 은혜에 꼭 잊어서는 생활이 간소하여져 자매님의 평안이 되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니 접하는 고신한 영혼들에게 영계 쓰임 받으신 것을 믿음을 바
한숙정(새가족부 후원)

교회 안내 1 **충현의 새가족들을 위해**

교회시설들을 소개합니다

교회학교 어린이들이나 새가족들이 교회앞마당에 들어서면 교회본당 부속건물들이 적지않아 당황하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따라서 새가족들이 교회 구석 구석에 무엇이 있는지를 잘 알고 당황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오늘부터 45주에 걸쳐 교회시설들을 자세히 소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건
심, 선
영희

새가족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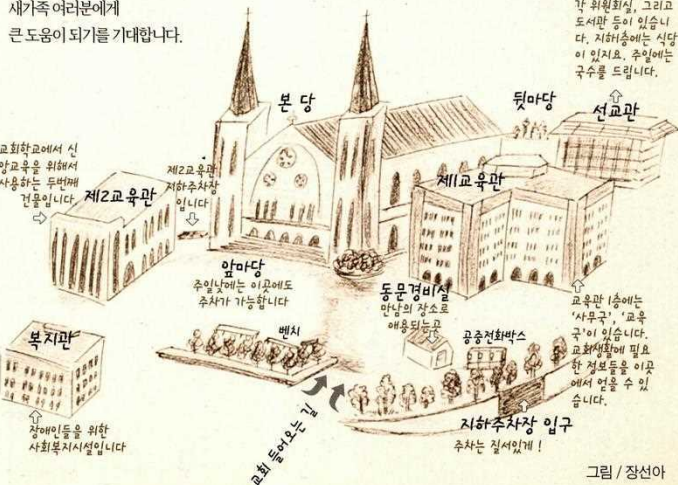


그림 / 장선아

복순이와 쌍둥이 천사같은 영이에게

아저씨 어제 퇴원했다.

짧은 시간, 그 짧은 만남인데 내가 영이에게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다니. 무슨 기적이야 싶어. 그 토요일 오후

사실 난 자신을 목적으로 목매 끈을 구하려 한번도 가지 않았던 그 병원 승터를 배회했던 거야. 나의 시대는 끝났고 나의 삶은 종말이란 확고한 신념때문이었어. 대안이 없었거든. 그런데 영이를 만나고 또 내가 이렇게 영이에게 편지를 쓸 수 있다니 하나님께 정말 우리 만나게 섭리하셨을까?

이곳에도 오고 싶진 않았어.

영이도 보통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하는 전도지 쫓지나 돌리는 그런 부류로 처음엔 생각했어. 강원도 동해 바다를 마지막으로 강릉을 거쳐 설악산 대청봉 끝까지에서 마지막 삶의 장을 접겠다는 것이 계획이었지. 너의 그 진실이 배어 있는 눈물을 보고 마음을 돌리거야. 자존심 강한 내가 보호 시설에 자치해서 수용되는 것은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앞으로의 계획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거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돌릴어 주시겠다'고 하는 이사가야 나랑 10월 말쯤을 마음속으로 같이 간직하기로 했어. 여기도 병원만큼은 못하지만 병동실이 따로 있어서 침대 하나를 차지했어. 3월 17일은 외래로, 4월 1일은 치료 방사선사로 예약했어. 병원에서 오라고 하면 언제든지 이곳에서 살아가 주는 시스템이 있어, 우선 강남 병원으로 이주할 각오로 통원 치료검 관찰을 받다가 약식 중앙 세포의 재발이 없으면 재입원해서 구강을 고치고 약연면 외과 수술을 병행할 계획이라. 치료비, 수술비는 이곳에서 수선하고 단지 보호 격리되어 있음이 부끄럽지.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도 시킬 수 있는 일이 있어서일까? (작그릇은 토기장이 마음대로라고 했으니나.) 답사해줘 기도도 해주고... 병원 갈지 않고 여섯한 침대에서 무릎에 대고 누워서 글을 쓰자니 영안이 되었어. 이해해 줘.

가까워 갈수록, 얼굴은 못 보고 지내지만 마음과 마음으로 우리 변치 말자. 주님의 은혜 속에 우리 천사 같은 영이 늘 평안하길 기원할게. 그럼 안녕.

1998, 3.1 낮선 은평 마을이란 곳에서 개뿔이 아저씨가

1998년 여름 하나님 곁으로 가신 기록이 아저씨...

2년전 어느 토요일 오후 병원 등에서 기도 모임을 갖고 있던 중자 삼을 위해 목매 끈을 구하기 위해 병원 뜰을 처음 밟으셨던 아저씨께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 소리를 듣고 다가오셨어.

설령오 하의 심본의 이가 절단되고 턱뼈도 제거된 상태라 말도 못하시고 침도 제대로 삼키기 어려우셨던 아저씨! 따뜻한 음료조차 누워서 조금씩 부어야 했던 아저씨지만 하나님을 만나신 후 암이 전신으로 퍼진 상태가 운세보다 성경통독을 3번, 하시고 말씀에 노트에 적어가며 예수님께서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고 계심을 깨달으셨다. 죄인임을 고백하시며 예수님을 구원 영접하는 기도를 보이며 주님과 함께 울고 기도하고 찬양하셨다.

약한 말을 하지 않도록 버려야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족과 집 그리고 건강이 없어도, 장님이 쓴 벽에 익숙하는 수율이 실패하고 싶어 찍어가는 순간에도 자신의 구원받았음을 연신 감사하며 하신던 아저씨. 아저씨가 하나님께로 가시기 전 날, 그 다음 때문에 의식이 희미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눈물 흘리시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청년1부 병원전동 백영미)

내 입의 진술 "아, 내 맘 속에"

번미자(청년1부, 76통기)

누군가 '자네만 좋아하는 찬송 한 장 골라 주세요.'하고 물으면 나는 단번에 "473장이다"라고 말한다. 이 찬송은 나도사약 때 통용을 준비하면서 부르게 되었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되었고 이 찬송에서 큰 힘을 얻고 있다. "아 내맘속에 참된 평화있네. 주 예수가 주신평화 시험당치와도 흔들리지않아. 어 귀다하 이 평안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나.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빌 4:6)

주님! 평화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유산이다. 그리스도는 평안을 통해 우리 마음과 영혼을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의 어떤 재물이나 명예와는 비교할 수 없고 또 빼앗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으로부터 오는 그런 절대적인 평안이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이러한 특권을 주시니 주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나의 나약한 모습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마음이 솟아난다. 지금은 우리가 세상을 방황하고 있는지 언젠가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본향으로 데리고 가신다. 항상 주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73장 찬송 해설 - 이 찬송의 주제는 평화이다. 이 곡을 작곡, 작사한 A.S. MURPHY 여사는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평화를 노래했다. 작곡가 필립은 그의 (복음주의 음악)에서 이르기까지 세상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평화"를 발로 했는데 그때 여사는 불행한 교통사고에서도 비범한 내적 평안을 누리고 있었다고 전한다. 작곡가는 인생의 시험이 우리를 구름처럼 둘러싼다고 하면서 속에 각기 위해 찾아 온 평화가 있다고 노래했다. 그같이 오해하지 우리는 내적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 그것은 주님의 축복으로 온 유산인 동시에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명령이기 때문이다.

몽골을 다녀와서

홍운희(청년1부, 72통기)

'94년 여름 대학 시절에 처음 해외의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때에야 비로소 선교가 어떠한 것인지 조금 알게 되었고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도 커서 나는 앞으로 어떤 모양으로든지 선교적인 삶을 살고 싶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한 선교사님을 통해 몽골에서 학원 선교 사역을 함께 해보자는 제안을 받아 지난 7월, 이름도 낯선 그 땅에 처음 가게 되었습니다.

몇차례의 단기 선교를 통해 계속적으로 단기 선교에 대한 소망을 재확인하기 위해 짧지만 소중한 나의 젊은 날을 주님께 바치고 온게 마음먹고 몽골로 떠났습니다. 그곳 생활은 때론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들이었지만 또한 개인적으로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중·장기 선교는 역시 단기 선교와는 달라서 복음의 핵심을 그들에게 말로써 전하는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화된 삶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하고 그들의 삶에서도 간절히 변화와 열매가 있기까지 꾸준히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평소 애 말솜에 비추어 바르게 살지 못했던 나의 삶이 선교지에 갔고 해서 갑자기 변할 리는 만무하여 자괴감이 든 연약한 모습들이 드러났고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열심으로 다가가지만 서로를 접근 방식에 오해를 사기도 하고



스리래들
원곡에서 첫번째
가 훈공회 자매(몽골지체들과 함께)

뜻대로 변화되지 않은 그들의 모습에 인간적인 좌절감도 경험하는 등 여러가지로 준비되지 못한 나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착종우들, 실수 연발이었던 6개월간의 몽골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지금,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갖고 기도해 준 나의 지체들에게 주님과 주님께 부끄러운 마음이 많습니나.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나의 크고 작은 실수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많은 것들이 감사하고 헌신하여 참으로 수고하시며 너무도 훌륭하고 귀하게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교회를 통해 서 많은 것을 배우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몽골이라는 나라를 직접 경험하고 알게하니 주님의 섭정으로 그들을 품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드러서 선교하는 일에 헌신하고자 하는 소망도 여전히 있습니다. 주님 앞에 기뻐하는 자질 수 밖에 없었던들 주님이 부끄러운 사하는 그릇이 되기 바라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지체장애 소식

영아부

교사 특별회의

지난 11일 (화)에 모여 2000년을 하나님에 원하시는 영아부로 만들기를 위하여 주제를 "하나님 아버지 모신 가정"으로 정하고 예수님처럼 자라는 아기가 되길 소원하며 실천사항으로는 먼저 가정 예배를 꼭 드리고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을 모르는 가정을 전도하는데에 목표를 두기로 다짐하였다. 또한 장로님께서는 교사들 각자 맡은 일에 책임있게 하여줄 것을 당부하며 교사들 이름 한명 한명 부르시며 열심히 해야 함을 사랑으로 보ید었다. 짧은 친교시간으로 웃음을 나누며 손에 손잡고 한해를 충성되이 봉사하기로 기도도 마무리 하였다.

(송혜경 통신원)

유아부

어린이들끼리만 예배드리기

유아부는 새로 3살 어린이들에게 계속 엄마와 떨어져 예배드리기를 권하고 있어서 엄마도 '잘 할 수 있을까?' 걱정되고 아기도 아직은 무서워 울기도 하지만 곧 적응하리라 믿어요. 우리 아이들의 능력은 생각보다 크거든요. 엄마와 떨어져야 신생년과도 더 친해질 수 있고 또 예배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엄마들도 아시지만 어떤 일들은 처음에는 어렵지요. 선생님과 엄마가 함께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일주일을 준비하면 곧 어린이들끼리만 예배드릴 수 있을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우리 어린이들의 마음에 함께 해주세요.

(임미순 통신원)

중등 1부

겨울 수련회

겨울 수련회가 오는 24일(월)부터 28일(우)까지 중현 기도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수님의 새 피조물'이란 주제로 예수, 복음, 변화된 우리들의 삶을 배우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주제 상구는 오는 24일 후서성 17절이구요. 주제찬송은 493장, 그리고 강사님은 김필수 목사님입니다. 수련회를 위해 선생님들이 기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기쁜 잔치에 우리 중등 1부 친구들이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기도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범진 통신원)

에바다부

학생만 2부 특별활동 시작

올해부터 에바다부 학생만 2부 특별활동을 시작한다. 시간은 학생만 예배가 끝난 후 11시부터 11시 50분까지이다. 지금까지 학생만 예배이후 특별 활동없이 집으로 돌아갔지만 2부 특별활동을 통해 에바다부 학생들의 교회 적응과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리라 한다. 2부 활동은 기도로 시작하여 찬양을 배우는 시간, 게임, 성경퀴즈 등 다양하게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미인 통신원)

3교구

새천년 희망찬 발걸음

21세기 새 천년 첫 3교구 모임이 교회에서 모였다. 사랑이 넘치는 얼굴로 아름다운 새천년사로 새천년 새 소망을 내치 수 있었다. 2000년 교구장 이병욱 장로님이 앞에서 이끄시고 이준경 목사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 교구를 먹이시고, 사랑과 보살핌으로 생경주시는 김경자 전도사님, 그리고 기도와 헌신을 아끼지 아니하는 강도남, 권사님, 구역장님, 집사님, 권찰님, 3교구 석구들이 있기에 올 한해의 시작도 희망찬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었다. 금년 한해도 성령님의 크신 은총으로 부흥되는 3교구가 되기를 바란다. 목사님 설교 말씀(고전 1:17)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이에게 전하며 서로 돌아오아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며 모이기에 힘쓰는 3교구가 되기를 기도한다. 대담 장로님 주 금요일 10시에 교회 배다나홀에서 모인다. 많은 참석 바란다.

(백미경 통신원)

나를 바꾼 한마디 "알았고, 구별하였고, 세웠노라"

김일승 (전도사, 대학부 부지도)

1996년의 일이다. 대학원을 준비 중이던 대학교 4학년 때였다. 몸이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하더니, 결국 자리에 눕게 되었다. 병원에서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했다. 얇친데 얇친 격으로 허리 디스크까지 발병을 했다. 매일 살아 있는 것이 고생이었다. 누군가 하루종일 내 온몸에서 피를 빨아내는 것과 같은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다.(실제로도 매일 링킹을 맞으며 열병했다.) 결국 학교를 휴학하고 침대에 누워 한달을 보냈다. 할 수만 있다면 고통스러운 숨쉬기를 멈추고 싶었다. 매일 누워서 한가지 기도만을 드렸다. "주님, 제발 저를 내려가 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싶었다. 기도원으로 금식 기도를 갔다. 첫날, 성경을 읽는데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렐1:5)" 그 순간 다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온 세상이 이 말씀으로 가득한 것 같았다. 하나님이 천지가 울리는 큰 소리로 나를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았다. 한 번도 목사가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지만, 그냥 그 순간에는 "예, 목사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헌신의 고백을 하는 순간 그때까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던 초등학교 1학년 때가 떠올랐다. 어린이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하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채로 "평생 하나님 일을 하겠어요."라고 울면서 고백을 했던 기억이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은 이후로 하나님은 몸을 치유하셨고, 그리고 나의 영혼을 치유하셨다. 이 말씀은 나의 인생의 길을 바꾸고, 지금 내가 신학을 하게된 이유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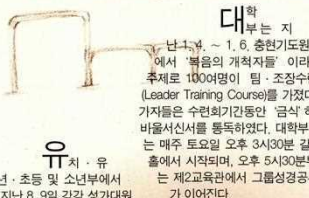
교무실

교무실에서는 교회공동체 안에서 행하여야 할 바람직한 행동의 지침을 제시하기도 하고 또 공동체가 지향하고 있던 일들이 좋은 성과를 거두었을 때 그 결과를 알려드리기도 합니다. 공동체생활을 함 위하여 이러한 시도에 성도 여러분의 연륜과 기쁨을 주시는 것은 물론 나이가 바람직한 교회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회장실에서 주님앞에서"

김집사는 주일날 회장실에 가 보았다. 휴지걸이에 걸려 있던 회장지는 성도들이 이미 다 사용하여 갈색 뚝뚝한 덧밧게 드러난 채 스승없이 걸려 있었다. 다행히 바닥에는 어떤의 휴지가 반비되어 있었다. 김집사는 휴지를 사용하고 그냥 그대로 바닥에 놓아 두고 회장실을 나왔다.

그는 주일을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하여 보내기 때문에 오후가 되어 다시 회장실에 갈 일이 생겼다. 그는 습관처럼 늘 사용하던 오전의 그 회장실을 찾았다. 휴지는 여전히 바닥에 행고 있었다. 몇 시간이 흐르고 많은 성도들이 이곳을 다녀갔지만 아무도 공동체를 위한 집간의 수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집사는 부끄러워 얼굴이 달아 올랐다. 그는 몸을 굽혀 어지럽게 풀려서 행구는 휴지를 단정하게 말아서 휴지걸이에 걸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명백한 사실은 본당에 계시는 주님은 회장실에도 계시다는 사실이다.



유치·유

년·초등 및 고학년부에서는 지난 8, 9월 각각 성가대원 선발 오디션이 있었다. 규정에 따라 찬송가용 지창곡이나 민요를 1곡을 택하여 외워서 불렀었다. 모두 열심히 오디션에 임해 심사하는 교사들을 호응하게 했다. 한편 각 부마다 20명가량이 초·고학년에 교사들은 선발과 재·교심하였다고 한다.

대학

부는 지

년·1, 4, ~ 1, 6. 중현기도원에서 '복음의 개척자들'이라는 주제로 1000여명이 팀 : 조장수련회(Leader Training Course)를 가졌다. 참가자들은 수련회기간동안 금식 하면서 비탈을 사흘을 통독하였다. 대학부 집회는 매주 토요일 오후 3:30부터 김일승 목사님 시작되며, 오후 5:30분부터는 제2교육관에서 그룹성경연구가 이어진다.

운동장

국 성경고사대회와 찬양경연대회가 우리 교회에서 열렸다. 대회참가자 전국에서 무려 40여명이 참가하여 찬양을 불러나갔다. 또 주초 날씨에 면서 성경고사 문제를 풀어나갔다. 또 주초 날씨에 면서 교회 건물 밖 이곳저곳에 모여 서서 찬양경연대회 참가자를 선생님, 친구들과 마지막으로 맞히 불러보던 어린이들의 열기는 대회에 그대로 이어져 경연장을 뜨겁게 달구었다. 한편, 이날 어린이들은 식당에서 떡볶이도 먹을 수 있었다!

강요실

◆ 3교구 장외로 성도(영동3구역) 심장 이식 수술 예정이지만 방이 없어서 수술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술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3교구 김계형 집사(미도1구역) 성도들의 많은 기도로 유방암이 57%째 더이상 악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복디아 전도에서 매주 2번씩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해주시요.

◆ 102구 강지은 형제(동소구역) 뇌벽이식수술 입원 중입니다. 빠른 회복을 기도해주시요.



1부 교사들은 지난

1. 11 ~ 1. 12. 한국 장영인 연구소에서 주관하는 '21C 장영인선교 및 복지 세미나'에 참여하여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교사들은 사랑부 학생들을 더욱 잘 이해하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동료로 더욱 확실히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계기를 얻었다고 한다.

